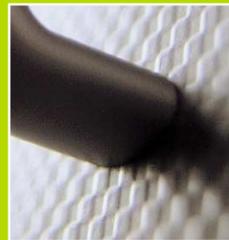


미니멀

미니멀리즘 조각은 작품 자체보다는 공간과의 관계, 관객과의 관계가 부각된다. 디자인 또한 디자인 그 자체로 완성된다기 보다는 소비자나 이용자의 경험으로 완성시켜 나가야 할 몫이 크다. 본지에서는 이러한 맥락을 토대로 최근 왜 미니멀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가? 우리의 일상에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미니멀 디자인이 나타나는 경향을 미술사, 그래픽 디자인, 제품디자인 등의 영역에서 살펴보고 다양한 사례의 프로젝트를 소개하고자 한다.

여기에 소개된 사례들은 디자인 외적인 성향, 즉 스타일에 국한시키지 않고 최소의 비용과 소재와 공간으로 최대의 효과를 추구하고 있는 의미있는 사례들 중에서 최근 국내외에서 주목받고 있는 프로젝트를 미니멀적인 관점에서 재해석하여 실었음을 밝혀둔다. 여러 사례들을 통해 미니멀의 진정한 개념을 이해하게 된다면, 단순한 트렌드로서 보다는 현대 디자인의 본질로서 의미있게 받아들일 가치가 충분하다는 생각이 든다.

구성 진행 | 편집부



minimal

일상에서의 미니멀리즘

Minimalism in the Ordinary

글 | 이병종(한국과학기술원 산업디자인학과 교수)

서구 디자인에서 '미니멀'이라는 제반 경향이 1990년대부터 두드러지고 있다. 일상 사물에 새롭게 도입된 미니멀 디자인은 무엇보다 다원주의를 표방하는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한 반작용으로 설명된다. 1980년대 신자유주의의 확산과 함께 대중문화산업의 급속한 성장으로 '포스트모더니즘'은 시대정신을 반영하는 새로운 양식으로 떠올랐고, 일상 사물의 세계는 역사적 양식의 절충에서부터 특이한 재료의 혼합과 이국적 양식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상징적이고 표현적인 장식 문양들로 뒤덮였다.

이로부터 야기된 양식적 혼란에서 벗어나고자 의식적으로 미적 의미를 최소화하는 디자인이 출현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단지 양식적인 문제에서 출발한 것이기보다 서구사회가 안고 있는 총체적인 사회문제에 대한 비판의식의 성장과도 깊은 관련을 갖는다. 무엇보다 1980년대를 거치면서 환경의식이 급속도로 성장하게 되어, 소비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폭넓게 확산되었다. 이로부터 일상 사물을 진지하게 바라보는 즉물적이고 기능적인 시각이 자라났고 기존의 합리적인 절제 미학에 대한 관심이 커져, 즉물성(Sachlichkeit)과 함묵적성을 따르는 서구의 전통적인 조형방식이 다시 부흥하게 되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즉물적인 탈물질성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새로운 미적 경향 또한 발달하였고, 이것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미니멀리즘이 등장하였다. 현대의 과학기술, 특히 전자기술의 발달로 사물들은 전문가가 아니면 그 내부의 기능을 이해할 수 없는 블랙박스 되어갔고, 갈수록 작아지고 얇아지면서 탈물질화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로부터 탈물질화는 공상과학 소설과 영화의 화두로 떠올랐고, 첨단 고급기술을 상징하



제8회 카셀 도큐멘타에서 전시된 미니멀 오브제, 1987년



구성주의(절대주의)의 의자, 타틀린(V. Tatlin), 1929년. '인간은 백, 신경, 근육으로 구성된 유기체이다. 따라서 의자가 탄력적이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는 새로운 유행 개념으로 전개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탈물질화를 상징하는 이미지는 절대주의적 조형 방식에 따라 수리적으로 단순화한 기하학적 추상양식으로 표현되었다. 이로서 '포스트모더니즘' 이후에 나타난 새로운 경향들은 대부분 공통적으로 즉물적인 기하학적 추상으로 설명되고 있다. 그러나 기하학적 추상이라는 절제된 형식언어가 합리적이고 즉물적인 디자인 방식에서 기인되었다고 해서, 미니멀리즘 역시 그와 같은 디자인 방식으로 묶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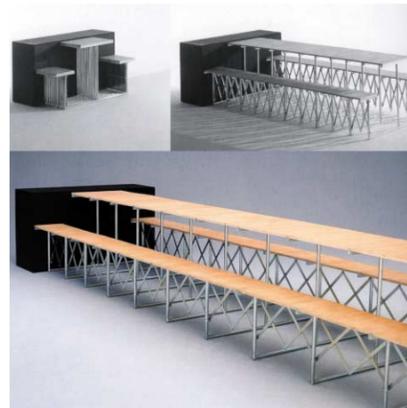
미니멀리즘의 기원

서구 예술에서 나타난 '미니멀'이라는 제반 경향을 지칭하는 미니멀리즘에 대한 논의는 미니멀 아트에서 출발한다. '미니멀'은 1965년 영국의 철학자 리처드 윌하임(Richard Wollheim)이 서구 현대미술에서 나타난, 의식적으로 미적 의미를 최소화하는 경향을 밝히고자 사용하면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1968년 7월 뉴욕 현대미술관에서의 전시를 계기로, 서구 미술시장에 새롭게 등장한 미국의 젊은 미술가들에 의해 주도된 한 특정 양식을 지칭하는 개념이 되었다. 미니멀 아트는 무엇보다 산업적 재료와 생산방식, 최소한의 기본 요소적 형태와 순차적 배열을 통해 개인적인 표현을 최대한 억제함으로써 익명성을 강조하고 단조로움을 부각시켰다. 이는 극단적인 현대성을 내세우며 엘리트주의적이고 개인주의적인 표현만을 일삼던 당시의 추상표현주의에 대한 비판인 동시에, 팝아트의 현대적 사실주의에 반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경향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미니멀 아트가 대중매체에 확산되자, 1960년대 말부터 회화와 조각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무용

과 음악에서 전개된 것들 역시 포함하는 역사적인 총체적 현상에 대한 통합적 개념으로서의 미니멀리즘이 등장하게 되었다. 그리고 볼커 피셔(Volker Fischer)는 이러한 미니멀리즘의 개념을 일상사물에까지 확장시켜, 긴반테(Ginbande), 콘스탄틴 그르치(Konstantin Grcic), 제스퍼 모리슨(Jasper Morrison), 필립 스타크(Philippe Starck), 그룹 제우스(Zeus) 등에 의해 주도된 서구 디자인의 한 새로운 경향을 밝히는데 사용하였다.¹⁾

폴커 피셔는 뫼피스와 유사한 방식으로 대중매체 홍보를 통한 세계화 전략을 기반으로 1980년대 중반부터 나타난 디자인의 새로운 경향들을 분류하면서, 1984년에 결성된 이탈리아 밀라노의 건축가 그룹 제우스(Zeus)에서 시작된 디자인 양식을 미니멀리즘으로 정의한다. 그는 이 양식을 팝아트적 요소를 통한 강렬한 상징과 과도한 역사적 운율로 표현되는 뫼피스의 양식언어에 대한 반작용으로 설명하면서, 켈빈주의적 강고함에서 기인한 극단적인 미적 요소의 축소로 특징짓고 있다. 그리고 색이 완전히 배제된 무광의 흑색, 무광의 금속 등 즉물적이고 중성적인 표면 또한 이 양식의 중요한 특징으로 설명한다. 이는 1962년 팝아트의 대대적인 전시 이후, 그에 대한 반동으로서 나타난 미니멀 아트가 1964년에 첫 선을 보였던 사실을 연상시킨다. 폴커 피셔는 팝아트와 뫼피스의 관계와 마찬가지로 이 새로운 양식을 미니멀 아트와 연관지어 회화적-개인주의적 장식을 의식적으로 배제한 미의 수리적 추상으로 보는 한편, 동시에 기하학적이고 구조적이고 파괴적인 시각적 충격을 이끌어낸 '미적인 계산' 역시 이 새로운 양식의 중요한 특징으로 꼽는다. 따라서 그는 미니멀리즘의 양식에 대해 '추상과 표현의 조화'라는 모호한 정의를 내린다. 폴커 피셔는 미니멀리즘의 이와 같은 양식적 특성이 바로 성공 지향적인 여피(Yuppies, Young Urban Professionals)의 냉철한 분위기, 다시 말해 미에 대한 엘리트적 의식수준을 강조하는 생활양식의 추구와 가장 잘 상응한다고 설명하면서, 필립 스타크를 이에 가장 잘 부합되는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꼽는다.

그러나 미니멀리즘의 본질은 대중매체의 생리에 알맞게 자극적으로 개발된 탈물질화의 미적 표현양식이다. 새로운 미적 충격을 자유로이 이끌어내기 위해, 개념미술에서 나타난 상징적 소통개념의 창조에 대한 주장과 함께 반(反)기능적이고 극단적인



젊은 의자와 탁자 '터블라 라사(tabula rasa)', 그룹 긴반테(Ginbande), 1987년



팔걸이 의자 '스페셜 박사(Dr. Special)', 스타크(P. Starck), 1983년



팔걸이 의자 '폴트로니카(Poltronica)', 그룹 제우스(Zeus), 1984년

미적 형식이 이끌어졌다. 사물을 최소한의 형태로 축소시키고 기하학적으로 단순화시킴으로써 탈물질적인 현대 과학기술이 갖는 즉물성과 기능성은 급진적이고 과격한 절제의 미로 표현되었고, 그 미적 작용은 거의 물질성이 없는 것처럼 되도록 면밀히 계산되었다. 이러한 미적 형식은 일상사물에서 신뢰하던 일반적이고 습관적인 모든 것을 낫설게 만들었고, 여기서 일상사물은 그 고유한 기능으로부터 이탈된 채 미술가 개인의 미적 개념을 반영시키기 위한 대상물이 되었다. 그 결과, 서구의 미술 산업은 이에 가장 먼저 큰 관심을 갖고 이를 소개하는 대규모 순회 기획전을 개최하는 한편, 그 반(反)기능적이고 무의미한 것에 의미를 부여하고자 미술가의 자기중심적이고 개인적인 작업관을 다양한 소개 책자나 출판물들을 통해 대대적으로 설명해나갔다. 그로부터 미니멀리즘은 대중매체의 각광을 받으며 서구 미술의 실증주의적 전통을 계승한 합리적이고 기능적인 양식으로, 다시 말해 모더니즘의 부활로 찬양되었다.

서구 미술의 실증주의적 전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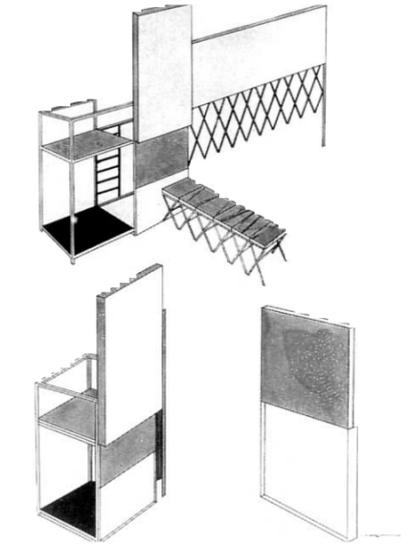
'미니멀'을 특징짓는 수리적인 기하학적 형태언어는 구체적이고 즉각적인 보편적 기준에 대한 이상적 형태로 서구 현대미술의 여러 단계에서 나타난다. 그 모든 단계에서의 공통점은 의심할 수 없는 절대적 객관성의 시각화로, 합리적으로 파악될 수 있는 이성적 인식에 대한 표현이다. 이는 모든 형이상학적인 것을 부정하고, 과학과 철학으로 확립된 주어진 사실만을 확실시하는 실증주의 이데올로기와 연관된다. 서양 미술에서 실증주의적 이데올로기는 그 어떠한 가치의 판단도 배제한 채, 형태를 구성하는 수리적 규칙만을 따르는 조형방식에 대한 양식적 이념이다. 이러한 조형이념은 시민사회를 이룩한 합리적 이성의 승리를 찬양하고 그 기념비를 높이 세우고자 한 고전주의 정신에서 비롯되었다. 서구 미술에서의 고전주의 정신은 20세기에 들어서면서 현대과학의 발전에 따른 이성적 인식의 급속한 확장에 힘입어 입체주의로 발전되었고, 사회주의적 이상과 결합된 구성주의와 테슈틸에 이르러 그 절정에 달하였다. 이는 특히 말레비치(K. Malevic)와 타틀린(V. Tatlin)에 의해 주창된 절대주의로 대표된다. 이들의 절대주의는 공산주의의 초기단계로서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미술의 사회적 참여운동으로서, "(미술의 모든)활동의 중점을 건축 전선에 두고 모든 혁명적인 건축가들

에게 동참을 호소”하였다.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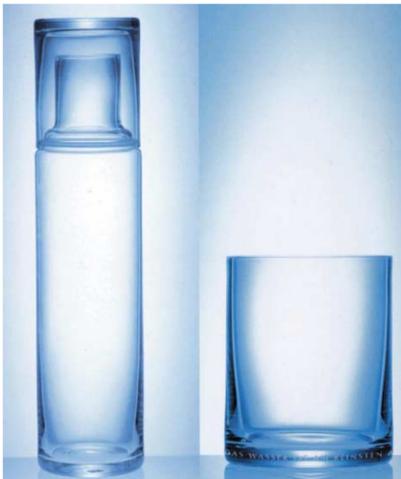
이러한 절대주의의 호소는 당시의 시대적 맥락 속에서 새로운 길을 모색하던 전위미술운동, 즉 신정신(Esprit Nouveau)과 바우하우스에 전폭 수용되었다. 그러나 절대주의적 형태언어가 아르테코와 같은 정반대의 세계관에서도 나타났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속도와 첨단기술은 당대 상류 엘리트층의 고급 생활양식을 대변하는 시대정신이었다. 절대주의의 기하학적 추상언어는 이러한 시대정신을 상징하는 장식문양으로 양식화되었고, 이러한 아르테코 양식은 제국주의적 이데올로기를 발산하는 권력의 상징으로 각광을 받았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부르주아의 실증주의적 조형양식은 그것이 대변하는 이데올로기와 각 국가들의 사회적 맥락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출현되었다. 유럽에서 실증주의적 조형양식으로 두각을 나타낸 것은 막스 빌(Max Bill)과 로제(R.P. Lohse)로 대표되는 콘크리트 아트(Concrete Art)로, 미술에서 수리적 사고를 강조하여 형태를 조형방법 그 자체로 이해하였다. 이러한 조형양식은 올림조형대학에 많은 영향을 주었고, 브라운 제품들을 통해 일상 속으로 퍼져나갔다. 이에 상응하는 미국에서의 실증주의적 조형양식이 바로 국제주의 양식과 미니멀 아트이다. 이들 양식들은 미국으로 건너간 바우하우스 미술가들의 영향을 받아 시작되기는 했으나, 미국 고유의 사회적 맥락 속에서 유럽에서와는 매우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국제주의 양식은 전쟁 이후 폭증하는 건축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최적의 양식으로 급속히 확산되었고, 당시 건축적 전통이 부재했던 미국의 일상 건축환경을 지배하게 되었다. 르 코르뷔지에(Le Corbusier), 미스 판 데어 로에(L. Mies van der Rohe), 그로피우스(W. Gropius), 브로이어(M. Breuer) 등에게 영향을 받은 미국의 젊은 건축가들에 의해 국제주의 양식은 전세계로 확산되었고, 그 수리적으로 단순화된 형태는 서구 현대 과학기술의 발전을 상징하는 것으로 찬양되었다. 그러나 미국의 건축가들은 무엇보다 유럽의 기능주의가 표방하는 사회적, 공리적 합리성으로서의 경제성을 미국식의 실용주의적 자본경제성으로 이해하였다. 따라서 미술과 사회의 변증법적 합리성에 대한 비례와 균형의 기하학적 기능성은 자본의 확대재산을 위한 시장경제적 기능성으로 치환되었고, 그 결과 이윤 극대화를 위한 수리적 육면체와 격자 등, 익명성의 획일적 형태가 표준화되었다. 여기에 국



구성주의(절대주의)의 노동자클럽 가구, 로트첸코(A. Rodtschenko), 1925



레오나르도의 식탁용 물병과 컵



일본풍 선(禪, Zen) 양식의 유행, 가구회사 몬타나(Montana)의 광고, 1999

제주의 양식이 이루는 콘크리트 구조의 즉물화를 강조하는 새로운 부르탈리즘이 가세하면서 인공물 환경의 황폐화와 그 정신적, 문화적 폭력은 극에 달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후기자본주의적 양식의 폭력성이 미술에 반영된 결과가 미니멀 아트였다. 미니멀 아트는 전적으로 익명성을 추구함으로써, 비인격적이고 수리적인 구성원칙으로 귀결되었다. 그로부터 결과된 미니멀 아트의 폭력성에 대해 로제(B. Rose)는 “60년대 미국의 미술가들은 적대적이고 공격적이며 반항적인 지리멸렬한 미술로서 중간계층을 공공연하게 고문하고자 했다”라고 비난하고 있다.³⁾

이러한 경향이 바로 1960년대 말 미니멀리즘이라고 칭하는 예술분야 전반에 걸쳐 나타난 총체적 현상이었다. 1980년대 중반부터 나타난 일상 사물에서의 미니멀리즘 또한 그 연장선상에 놓여있는 것이다.

‘미니멀’ 디자인은 보는 이에게 강한 탈물질적 느낌을 불러일으키고자 단순한 기하학적 요소들로 축소된 형태로 나타났다. 사물이 갖는 입체의 형태를 부피의 본질적인 원소로 축소시키고, 그로부터 결과된 기하학적 구조가 분명히 인식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수학적 합리성을 강조하는 요소적 조형방식은 구성주의와 일련의 관계를 갖는다. 그러나 즉물화와 탈물질화에 상응하는 미적 표현을 추구한 미니멀 디자인에서 나타난 현상은 탈기능화된 육면체, 격자, 선재, 무의미한 표면 등으로 한정되었다. 이 점에서 미니멀 디자인은 구성주의적 디자인 원칙과 정반대로 대립한다. 구성주의는 사회의 혁명적 변화를 위해 사물의 기능이 갖는 재료적, 구성적 특성에 대한 미의 긴장과 균형의 변증법적 상호작용의 관계를 디자인에 반영시킨 것이다. 이렇듯 구성주의자들은 사회적 이상 실현에 부합하는 기능을 사물에 부여하고자, 디자인에서 재료에 합당한 생산방식과 인간에게 적합한 형태를 추구하였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미니멀 디자인은 전적으로 대중매체를 위한 탈물질성의 미적 상징 이미지를 추구하였다. 이로써 나타난 단순하고 지적인 미니멀 양식은 그 어떠한 조형방식보다 즉물적이고 기능적이며 현대적인 이미지를 표출해내었고, 그 속에서 사물 본연의 기능성과 합리성은 미적 유희의 대상이 되었다. 이는 마치 유선형 양식으로 만들어진 기차나 자동차가 빠른 속도로 주행할 수 있을 것만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표면적을 넓히고 공기 흐름을 저해하는 양식화된 형태 때문에 공기저항이

오히려 증가하는 양상과 유사하다.

미니멀리즘의 탈물질화가 품어내는 첨단 고급기술의 ‘즉물적이고 단순한’ ‘기하학적이고 기능적인’ ‘모던한’ 가상의 이미지는 경제적 성공을 과시하고자 하는 여피 계층의 엘리트적 취향을 적절히 대변해냈다. 따라서 생산업체들은 마케팅 전략적 차원에서 미니멀리즘에 관심을 갖고, 미니멀 디자인을 패션디자인 상품들처럼 플렉서블이나 에디션의 형태로 시장에 내놓게 되었다. 이렇게 시장에 나타난 미니멀리즘은 관상용의 대중매체-디자인에서부터 기본적인 기능만은 살려 다소간의 사용이 가능한 디자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였다. 그러나 대중매체는 탈물질화된 가상의 기능을 갖는 미니멀리즘에 합리적 기능성을 부여하고자, 즉물성과 기능성에 입각하여 단순화된 기하학적 형태를 갖는 디자인에까지 손을 뻗쳐 미니멀리즘의 개념으로 소개해나갔다. 그러나 대중매체에 나타나는 ‘미니멀’ 디자인은 여전히 미적 충격을 이끌기에 안성맞춤인 스타 디자이너의 관상용 대중매체-디자인 일색이었다. 그리고 최근 일본으로 대표되는 아시아의 이국적 양식이 다시 유행하고, 세계화로 두터워진 여피 계층의 생활양식을 특징짓는 것으로 부각되자, 미니멀리즘은 일본에 대한 이국적 취향을 대표하는 선(Zen, 禪) 양식마저 묶어내었다. 이로써 결과된 미니멀리즘은 마치 다윈주의를 위한 아르테코의 부활과도 같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에게 나타난 미니멀리즘

‘단순하고 깔끔한, 미니멀’. 최근 디자인을 전공하는 학생들 사이에서 십중팔구 자신이 디자인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의도나 결과를 설명할 때 가장 역점을 두는 말이다. 여기서 ‘미니멀’은 모던한 것이고, 20-30대 성공한 독신 전문직업인을 대표적으로 상징하는 이미지이다. 그리고 이러한 미니멀 디자인의 대표적 우상은 필립 스타르크(Philippe Starck)이다. 이러한 현상은 상류층에서 유행하는 최신 인테리어 장식을 다루는 여성지를 비롯한 디자인 관련 잡지들이 서구의 대중매체에서 각광받는 ‘미니멀’ 디자인을 소개하면서 비롯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미니멀리즘이 표출하는 ‘즉물적이고 단순한’ ‘기하학적이고 기능적인’ ‘모던한’ 등의 가상 이미지는 서구의 것에 맹종하는 우리에게 현실적 실존으로 인식되었다.

이렇게 시작된 미니멀리즘은 올 봄에 개최된 가구박람회를 통해 최신 유행현상으로 우리에게 본격



캘빈클라인 남성복



실내에서 사용하는 컨테이너

적으로 나타났다. 그 가구박람회에서는 미니멀리즘을 내걸은 각종 레트로 디자인, 퓨전 디자인이 성황을 이루어, 아르테코 전람회를 방불케 하였다. 여기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서구에서 일본의 전통양식을 이국적으로 양식화한 선 양식을 우리가 다시 이국적인 장식문양으로 사용하는 극도로 혼란한 치현상이 발생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가 언제나 서구의 것을 단순소 형식적인 유행으로 변질시켜 키치적으로 모방하는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비단 미니멀리즘이나 선 디자인의 경우에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매 시기마다 계속적으로 지속되어왔다.

우리에게 서구는 식민지적 지배권력을 상징하고, 따라서 각 시대마다 서구에서 나타난 모든 양식은 우리에게 권력을 상징하는 장식으로 받아들여지고 키치적으로 사용된다. 그 결과, 우리의 디자인이 추구하는 바는 ‘서구의 최신 유행양식으로 장식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그 유행은 썰매없이 옷을 갈아입는다. 따라서 우리의 관심은 새롭게 등장한 서구의 양식이 갖는 역사적이고 인식론적 실체에 있지 않고, 오로지 그것이 서구의 최신 유행인가 하는 것이다. 서구의 최신 유행양식을 주도함은 우리 사회에서 식민지적 규율과 권력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하는 반면, 유행을 따르는 것은 그 규율과 권력에 대한 동경과 복종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서구의 미니멀리즘이 갖는 후기자본주의적 관계는 여타 서구의 것이 우리에게 수용될 때와 마찬가지로, 식민지적 규율과 권력의 관계로 치환된다. 이와 같이 서구의 유행이 식민지적 규율과 권력의 관계로 치환되는 과정은 모더니즘이나 포스트모더니즘 등에서 잘 드러나듯이, 수용 대상의 구체적 실체가 불분명할수록 잘 작동하는 메카니즘을 갖는다. 따라서 미니멀리즘이 실존적이고 명확한 개념을 갖는다면 미사여구로 치장하여 지배적 권력을 피하기에 부적절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행으로 삼아야 할 서구의 최신 디자인 경향으로 부각되기 어려울 것이다.

1) Fischer, Volker, (Design heute), Prestel Verlag, 1988 Monchen, pp. 101-103 참조
2) Malevic, Kasimir, (절대주의 선언), 1924: Conrads, Ulrich/이현호, 「건축선언문집」, 기문당 1995, p.111
3) Gregor Stemmrch(ed.), (Minimal Art. Eine kritische Retrospektive), Verlag der Kunst, Dresden 1995, p.535



이병중 _ 1964년 생으로 서울대 공과대학과 독일 브라운슈바이크 공과대학에서 설계학을, 브라운슈바이크 조형미술대학에서 산업디자인을 전공하였다. 현재 한국과학기술원에 재직하여,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 출강하고 있다.